

전쟁반대! 미국반대! WTO개방반대!
113주년 노동절 맞아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여성행동위원회



여성행동위원회 자료집
○○○○

C ontents

여는글

전쟁과 여성

- Now! 反美反戰! For Women' Name!!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
여성의 언어로 드러내기과 사례글모음**

기고글

-서울대 학생투쟁위원회 반성매매 포럼

Chapter1 성매매, 넓은 맥락에서 읽기

Chapter2 성매매 바로 알기

보론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여는름

당신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고
그려한 울림을 전쟁반대! 미국반대! WTO개방반대!
113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여성행동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화엄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다라의 하늘은 구슬로 엮인 그물로 되어 있어,
단 하나의 구슬에서라도 울림이 있으면,
다른 모든 구슬에도 그 울림이 퍼져나간다는..
그리하여 인다라의 하늘에는 조화로운 화음이 그득해진다는..

가장 치열한 공간이 430, MayDay,
그공간에서 다시 여성을 봅니다.
수많은 여성들,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430MayDay 투쟁에는

노동형제들과 연대하는 남성활동가들의 자리는 있을지언정
노동형제자매, 그/녀들과 연대하는 여성활동가들의 자리는
신체적/언어/환경적 성폭력으로 인해 위협당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113주년 노동절맞이 430MayDay를

다시금 '일상적 여성주의' 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2003년 430MayDay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수한 폭력의 양상들과
성폭력을 위시한 일상적 폭력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잔인해져가는 폭력에 맞서
우리의 의지가 담긴 울림으로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그려한 고민과 실천을 여성행동위원회와 함께 합시다.
당신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해방이 당신의 해방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와 연대로 희망을 위한 울림을 만들어 봅시다.

이라크 난민 여성이 피난 도중에 동굴에서 아이를 낳고,
 피난지에서의 악몽같은 캠프생활마저도 물을 길고 먹을 것을 모으며,
 슬픔을 삼키고 애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감추고
 남자들이 힘을 내도록 옷여야만 함을,
 통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좁은 공간에서 숨막힐 듯 지내는 와중에서도
 온갖 정리정돈은 여성의 몫이 되고 부상자들에 대한 보살핌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부양이 모두 여성의 몫이 됨을,
 전쟁과 군사주의가 조장하는 침략의 문화가
 가정폭력과 강간과 성폭력에 그녀들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전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출산시 질환과 유산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반전운동을 전개해야 할까?

이라크 여성들의 억압적인 상황이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 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만에 대해 어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인가?

미국의 무장화된 세계화 전략이
 미국의 군수 산업체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줄 때,
 이라크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교육, 사회복지, 육아 프로그램 등의
 재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삭감되고 마는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녀와
 다르지 않다

전쟁반대선 미국반대선 WTO반대선
 113주년 노동절 맞이

여성행동위원회



전쟁과 여성

Now! 反美反戰! For Women' Name!!

1. 페미니스트의 임무를 띤 미군?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겠다고 전쟁의 최초 목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자 골프스트가 바뀌었다 부시는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고 아프간 여성을 부르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미
 해방대원들이 페미니스트의 임무를 띤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다
 -아룬다티 로이 Not again! #

언제부터인가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전쟁론자들은 이라크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녀들을 부르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정의를 앞세우며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이제 미국의 군인들은 페미니
 즘의 임무를 띤 미군에 투입된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 전쟁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녀들의 '고통'과 전쟁이 강요하는 그
 녀들에 대한 '희생'을.

2. 지금, 이라크의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1)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는 9월 28일의 반전시위에 즈음하여,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다름아니라 세
 계 자본주의이라고 진단한 글, '이젠 안돼!(Not again)'를 9월 27일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발표했다.
 번역된 글 전문은 인터넷신문 GEOreport(http://www.georeport.co.kr/news/articleview.asp?menu_code=&no=12725)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원문은 <http://www.guardian.co.uk/g2/story/0,3604,799850,00.html>을 보라.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쏟아부은 열화우라늄(DU, Depleted Uranium)탄은 이라크를 생명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다.

2002년 8월 11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바 있는 걸프전에 참전했던 영국 병사들에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이 보도에 따르면 걸프 지역과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에 참전했던 군인의 염색체 이상이 일반인에 비해 14배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2만 1천 명의 병사들을 조사한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걸프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자식에게서 선천적 기형의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2내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걸프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보다도 직접적으로 열화우라늄탄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 사람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이다. 거의 315톤의 열화우라늄 분진이 남아있는 이라크의 경우, 암 발생은 7내지 10배 증가했고,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4내지 6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함암 치료제 등을 구할 수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핵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진찰용' 방사성 동위원소(라디오 아이소토프)를 비롯한 함암 치료제의 수입조차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열화우라늄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오염 수치가 10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른 암 발생, 기형아의 급증에 대해, 이라크의 의사들은 초유의 제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여성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을 거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아기가 태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3. 미국은 왜 이라크를 침공하였나? ; '금융적 세계화' 이면의 '무장한 세계화'

이라크 침공은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이 자국을 전 세계적인 지배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세계 전략의 서막을 알리는 명백한 움직임이다. 이런 전략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되는 어떤 나라에도 예방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지난 2002년 9월 20일의 '부시 독트린'에서 공식화한 바 있다.

냉전 질서의 해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의 패권 전략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의 해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간 체계를 재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관리함에 있어 미국의 특권을 보호하고, 특히 고(高)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봉쇄했으며, 광범위한 경제적 쟁점들에 걸



쳐 있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방 및 양보를 강제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 배제된 지역의 갈등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책 동등한 국가간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엔의 지원에 기반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접근방식보다는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의 재조직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은 배제된 지역에서의 반마반세계화투쟁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미국은 그러한 미래의 위험요소들과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잠재적 위험요소들과의 전쟁이 미국의 기본적 대외전략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국가의 주권성

보장이라는 유엔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주권국가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를 대체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권리로써 '제한적 주권 독트린'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위험국가들에 대한 경제봉쇄와 함께 이들 국가 내부의 반란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공중폭격 등을 포함한 '현대적 포위전'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수단을 동원했다.

마침 발생한 911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라는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알 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과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이번 이라크 침공은 911 테러 이후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인 부시 독트린 기치 아래 진행되는 첫 번째 전쟁으로, 미국은 자신의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국가(미국은 이 명단 자체를 '의지연합'이라고 지칭한다)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확히 구분, 향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될 국제 질서에서 후자를 배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의지연합"에 가담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크게 분기하는 중이다. 선택지는 굴종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라는 오직 두 개의 항뿐이다.

이처럼 자본의 세계화와 [지구행성(planet)]의 군사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담론들과는 반대로, 세계화는 평화의 최고 단계를 상징하지 않는다. 미국은 두 과정들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2)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실시한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의회 비준 거부(1999)
- ▶ 생화학무기 조약의 강화를 위한 런던회의 거부(2001.7)
- ▶ 불법소형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는 유엔 합의 거부
- ▶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소련과의 탄도요격미사일(ABM) 조약 탈퇴(2001.12)
- ▶ 고문방지를 위한 유엔협약 체결 거부
- ▶ 가입 국가에 교육, 직업, 결혼, 이혼, 보전 등 각 분야에서 여성차별 장벽을 없애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반대
- ▶ 미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을 UN안보리로부터 승인받음(2002.7)





다. 미국의 가속화된 군사화는 몇몇 적대자들을 만났다. 그것은 실재의 그리고 가상의 잠재적 적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강화한다.

또한 미국은 세계석유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이라크를 무력을 통해 굴복시켜 석유를 수중에 넣고 통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패권을 목적하고 있다. 석유거래와 기준통화인 달러화를 유로화로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달러해게모나를 유지하고 석유생산량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 수립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친미정권이 수립되는 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비롯한 중동의 침예한 갈등에 미국의 패권을 위한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는 중동에서의 반미정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세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4. 바그다드 함락이후의 이라크 전쟁: 농밀해진 폭력, '점령과 지배'의 침략전



바그다드 함락으로 국면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국면은 '전쟁에서' '점령과 지배'로 변화하는 시점이다.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침공을 강행해 바그다드 함락에 성공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틀어쥔 미국의 독주는 가속화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독주는 국제사회의 균열을 더더욱 가속화하는 데에도 분명 일조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침략 이후, 미국에 의해 세워진 과도기 정부가 종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극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고, 탈레반의 재규합으로 지금도 '저강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개입의 역

사는 곧 그 지역에서의 원한과 보복의 역사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결국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비판할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발행되는 주간 <알아흐람>은 최신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힘의 균형축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테러는 힘의 균형추 구실을 한다. 자국의 정체성과 가치체계가 미국의 해게모니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국제법과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엔을 강화시킬 만한 자원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테러공격은 약자를 위한 마지막 방패일 수 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맞선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도 동시에 열렸다"

또한 또다른 '악탈전'도 이미 시작되었다. 전후 복구와 민영화라는 이름의 이전투구가 이라크 전역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4백80만달러가 소요되는 이라크 남부 항구도시 움 카스르의 항만 건설 사업은 이미 아메리카하역서비스(SSA)에게 낙찰됐고, 공항 건설 업체 선정은 현재 진행중이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도로와 교량 등의 복구 사업자 선정 입찰에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을 초대해왔다. 복구 사업 계약자 선정은 그 명목이 '복구'이기 때문에 낙찰후 계약은 1년이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담아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사업자 선정 분야가 상수도, 운송, 도로, 학교, 통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다셀 이사는 하원의원은 미 국방부가 전후 이라크에 미 켈립사에 특권이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폰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미국의 <내이션>은 이라크 사례가 성공한다면 전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Bomb before you buy")라는 새로운 독트린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라크의 민영화와 시장 개혁이 성공하면 이란이나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 주변국들의 민영화도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국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는 '복구 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중동 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혁-자유무역지대화'라는 것이다.

5. 다음은 한반도인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가정사실화되면서 "다음은 한반도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일련의 조치를 밟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야비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후,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를 유도하는 일련의 단계를 밟고 있다.

'북핵 위기론'이 미국에 의해 조장, 고조되는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미국을 방문,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과 함께 북핵 해법에 대해 협의했다. 하지만 윤영관 장관의 제안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파월 장관이 대답했다는 것은 그가 북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아무도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그저 "흥미로움" 따름이다.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대북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나쁜 정책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페리보고서가 검토했던 '무시' 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의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북한을 다녀간 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에 기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강석주 부주석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과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수입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로서 매우 불충분하다. 북한 외무성 관리는 "그들이 주장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계획을 부정했다"며 미국 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강석주 부주석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미국의 발표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북한식 표현을 의도적으로 오해한 결과인데, 본래 이는 '곧 가지게 된다'가 아니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품목인 코발트 파우더, 고강도 알루미늄의 경우도 재래식 무기나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와 유사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례였다. (1998년 10월경부터 미국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평북 금창리 지역에서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모든 언론은 연일 떠들썩하게 핵위기를 제기했지만 1999년 5월, 미국 조사단은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끝에 이는 핵시설과 무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집권 이후 북한과 그 어떤 공식적인 외교접촉도 시도하지 않는 부시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와 이란, 북한이 서로 모종의 관련을 맺는 것처럼 묘사했다. 금창리의 경우, 제네바합의의 틀이 유지되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시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선언했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역시 분명한 근거도 없이 북한이 영변지역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 그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세워야 한다고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다녔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된 수순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가 될 것을 자청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역시 발본화해야 한다.³⁾ 북한이 새로운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부추겨진 공포감, 한국의 파병안 가결이 늦어지자 연일 이어지던 무디스 신용등급의 하락 소식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한 위기감은 결국 미국의 '충격과 공포' 작전의 효과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원해야 된다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국익'이란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만 결국 막연한 공포감에 기반한 것이다. 노무현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연설에서 "대동한 한미관계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은 '대동한 한미관계는 국민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의미로서,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협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만 그들이 불러 일으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렉산더가 단 칼에 잘라낸 고르다이스의 매듭처럼, 본질은 단순하고 해결책도 존재한다. 단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거부할 때에만 가능하다. 칼을 들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는 점점 더 부시정부가 끌고 들어간 미로에서 헤맬 것이다.

6. 여성의 이름으로-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6-1. 지난세기, 반전운동에 대한 약간의 고찰

1차대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던 콜론타이⁴⁾

3) 파병동의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투쟁에도 불구하고(그 와중에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한 청년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다)노정권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노정권의 결정은, 그러나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최악의 선택에 해당한다.

4) 콜론타이 Aleksandra Mikhailovna Kollontai
: 러시아의 혁명가.



"우리는 4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20세기 내내 1차대전과 2차대전 그리고 냉전 즉 3차대전에서 우리가 건설하고 지키려고 했던 자유주의 문명을 위협하는 아랍과 이슬람권 지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전쟁이다...이라크 외에도 이란과 시리아·수단·리비아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테러를 후원하거나 지원하고 있다...전쟁은 중동의 면모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서 중동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의 최근 연설은 미국이 세계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단적으로 알려준다. 4차 대전까지 거론되는 최근의 상황은 지난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세계전쟁의 폭력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그것도 더욱 참혹한 양상으로(앞에서 거론한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상기하라)끔찍한 우리를 충분히 기능케 해주는데, 그것은 동시에 세계전쟁에 맞서 싸웠던 지난 세기의 운동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1차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자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을 '국제사회주의의 보석'으로 찬양했다. 독일 사민당은 전쟁반대에 가장 확고했고 그것은 또한 콜론타이의 스승인 클라라 제트킨에 의해 지도되는 유럽 최대의 여성운동의 방향도 결정되었다. 대전 전까지 콜론타이는 스스로를 망명 사회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로 여겼다. 그녀는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다. 파리에 서 그녀는 물가양동에 항의하는 주부들의 파업을 조직했고, 벨기에에서는 광부파업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회주의 청년들에게 군국주의에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은 콜론타이를 불세비즘에 이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콜론타이는 전쟁을 지지하고 인터내셔널을 배신한 독일 사회주의자들을 목도하고는 경악했던 것이다. 그녀는 불세비키가 국수적 애국주의에 대해 가장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1915년 6월, 공식적으로 그들과 결함하였고 레닌과 활발한 교신을 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종식시켜야 했고 국제사회주의를 재건해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단 말인가? 콜론타이의 멘세비키 지도자 플레하노프는 독일 사민당과 똑같이 쓸모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콜론타이의 귀에는 평화주의자들의 "지금 평화를!"이라는 호소가 쟁쟁했지만 플레하노프는 그의 오랜 멘세비키 동지이며 러시아 태생의 이탈리아 사회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였던 안젤라 발라바노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늙고 병들지만 없었다면 가까이 군대에 입대하겠고 당신의 동지들을 총검으로 무찌르는 것이 나의 최대의 기쁨이 될 것이오"(이에 대한 발라바노프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나의 독일 동지들은 또한 당신의 동지가 아닙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나에게 독일의 철학 사회주의인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를 이해하고 배우라고 가르쳤단 말입니까?") 플레하노프는 이제 '국도의 애국자가 되어있었고 콜론타이는 그를 거부했다. 레닌 또한 제2차 인터내셔널의 시기는 종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콜론타이가 불세비키 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처럼 보였다. 물론 평화주의자로서의 그녀가 전쟁의 단순한 종결이 아닌 내란으로의 전환을 주장, 제국주의 전쟁

1908년 러시아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으나, 1915년 공산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1917년 10월혁명 후 공공복지인민위원 등의 요직을 거쳐 세계 최초의 여성 외교관으로서 1923~1926년 노르웨이 공사(公使), 1926~1927년 멕시코 공사를 거쳐 1930~1943년 스웨덴 공사와 대사를 역임하였다.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였고 또한 웅변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성해방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사랑 Vasilisa Malygina」(1923)은 한때 독서계를 풍미하기도 하였다.





은 내란으로 바뀌어야 한다"하는 레닌의 견해에 쉽게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15년 콜론타이는 공식적으로 그들과 결함을 선언하고, 보다 강고한 반전투쟁을 벌여나가게 된다.

6-2 지금,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침략전을 반대하자! 여성의 이름으로!!

; NOW! 反美反戰! for Women's name!!

그녀의 반전투쟁이 단순한 평화주의로 경도되지 않았던 것은, 콜론타이가 이미 여성의 일상이 전혀 평화롭지 않음을, 전쟁의 반대말로 평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찌하면 너무나 안이한 것일 수 있음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투쟁은 이라크의 난민여성이 파란 도중에 동굴 속에서 아이를 낳고, 파란색에서의 악몽같은 캠프생활마저도 물을 길고 먹을 것을 모으며 슬픔을 삼키고 애들을 위한 놀이거리를 생각하며 눈물은 감추고 남자들이 힘을 내도록 웃어야만 함을, 통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좁은 공간에서 숨막힐듯 자내는 와중에서도 온갖 정리정돈은 여성의 몫이 되고 부상자들에 대한 보살핌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부양이 모두 여성의 몫이 됨을, 전쟁과 군사주의가 조장하는 침략의 문화가 가정폭력과 강간과 성폭력에 그녀들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전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출산 시의 질환과

유산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이라크 여성들의 억압적인 상황이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만은 우리의 투쟁이 보다 예리해지고 단단해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반공을 증가시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무장화된 세계화 전략이 미국의 군수산업체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줄 때, 이라크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교육, 사회복지, 육아 프로그램 등의 재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삭감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미 국방성은 이라크 여성 혹은 그 어떤 다른 여성도 해방시킬 수 없다.

이라크 여성, 나아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회생을 강요당하는 이 땅의 여성들의 해방은 전세계 여성들-그리고 그러한 여성들과 뜻과 힘을 함께 하는 남성들의 연대투쟁으로 안아올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참을 수 없는 폭력에 맞서 싸워왔던 민중의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인민들의 힘찬 투쟁의 함성에 귀 기울이자.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자명해질 것이다.

지금, 430-Mayday에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이자!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침략전을 반대하자! 그 점령과 지배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벌이자! 더욱더 농밀해지는 폭력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자!

바로 지금, 430-Mayday에서부터! 바로 우리, 여성의 이름으로!!

5) "전쟁반대=평화실현"의 논리구조의 허약함에 대해서는, 여성신문 720호에 실린 글에서 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정갑회(『여성이론』편집위원, 한신대 교수), 『시평』 단독, 탕크의 총구에 '콘돔'을!, 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www.womennews.co.kr>



아랑 춤추다

꽃피고 벌나비 나는 봄
너울너울 춤을 추는 흰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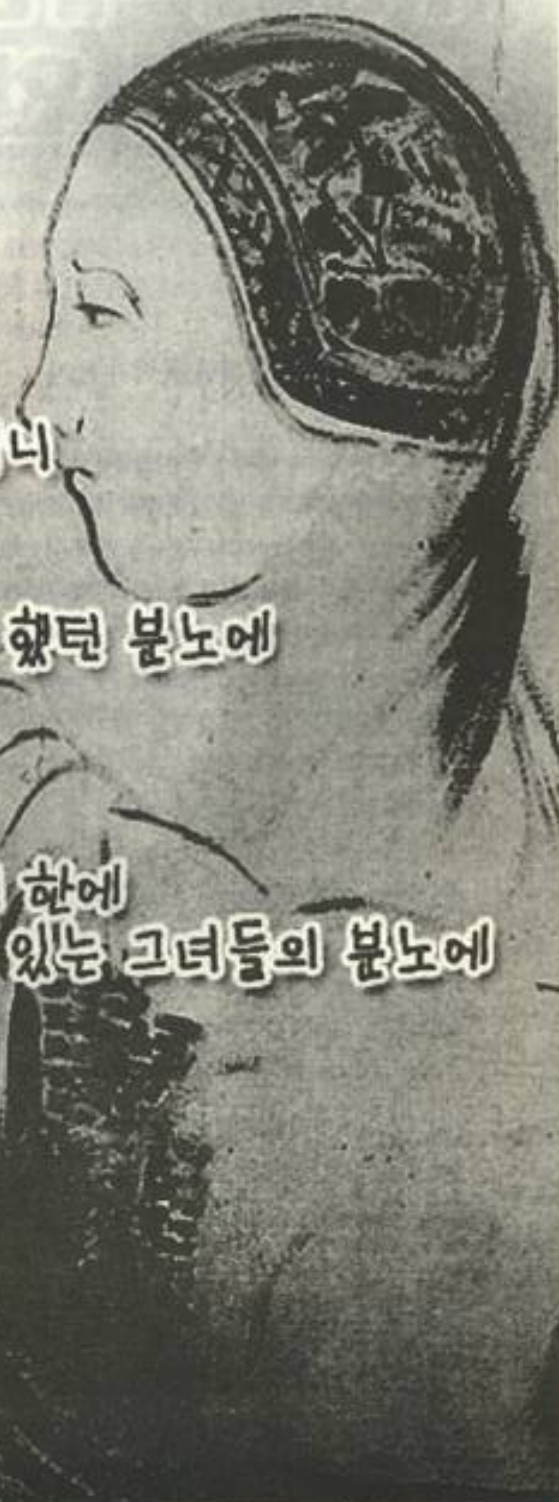
그리나
흰나비 아랑의 몸짓은
치열함으로 봄을 막는 그것일지니!

몸과 생을 능욕당한 한에
여성이란 이름으로 죽어야만 했던 분노에
흰나비되어

아직도
몸과 생을 능욕당하는 자매들의 한에
여성이란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녀들의 분노에
흰나비되어

울 봄에도 어김없이
흰나비되어

너울너울
흰나비 춤춘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 여성의 언어로 드러내기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는 이 사회에서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 반복의 시작을 묻는 것조차 낯설어질 만큼 이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곤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의 양상은 다양한 방식과 구조들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질곡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역사적 가부장제 하에서 견고하게 구축된 남성중심적·여성배제적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하루아침에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운동이나 지난 시기 모성보호 투쟁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은 견고한 구조에 파열구를 내며 변혁의 가능성을, 희망을 던져주곤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파열구'를 만들어내기엔 그것이 '일상'이기에 오히려 어렵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사회제도 속에서 다양한 것으로 인식되는 기호와 구조로 구성된 일상이기에,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질서와 원리인 양 여겨지기에 일상에서의 파열구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집단적인 여성의 언어로 드러내기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가 일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고통은 파편화되고 부차화된다. 어쩌면 당연한 것같이 느껴지는 문화와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과 불편함을 스스로의 원인으로 돌리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자칫 개별적인 사안이나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기에 '일상에서의 파열구'는 여성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인 발언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고 여성들간의 경험을 공유할 때에야 자신의 상처와 불편함이 스스로를 탓할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구조의 문제임을 인



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한 여성들간의 연대와 집단적인 저항의 표출은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처럼 군림하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에 대해 폭로하여 인식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여성의 언어로 드러내고 공유하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애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왔던 폭력적인 경험과 상처를 이야기해보자. 마음 한 구석에서 자신을 움아 때오던 때론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던 기억과 경험을 대면하고 드러내보도록 하자. 이 땅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과 공유하자. 그리고 집단적인 여성의 언어와 요구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에 대해 제기하고 이를 바꾸어내도록 하자.

또한 이는 430MayDay까지의 흐름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 일반을 투쟁의 주제로 상정하여 사고함에 따라 투쟁과정에서 여성의 투쟁과 요구는 부차화되었을 뿐이었다. 활동에 있어서도 남성 일반을 중심으로 사고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수많은 폭력과 배제가 이루어지곤 하였다. 하기에 430MayDay까지의 투쟁의 과정에서 지난 시기의 평가와 반성을 통한 여성의 집단적인 발언과 실천 역시 주요한 투쟁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자료집의 '사례모음'은 바로 이러한 의도 하에서 수합되고 구성되었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여성들이 느낀 상처와 경험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사고되지 않길 바란다.

단위에서의 풍부한 공유와 논의를 통해 자료집에 실린 사례들이 나의 지난 경험과 함께 공동의 문제로 되살아나길, 내 옆의 구성원의 문제로 인식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일상화되어버린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의 양상이 여남 공동의 노력을 통해 파열구를 낼 수 있길 바란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배제, 여성의 언어로 드러내기

- 사례글 모음

● 1학기 수강신청을 마치고... ●

첫 수업을 들어갔다.

수상스키는 방학때 2박 3일 몰아서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 첫날의 수업뿐이었다.

'수상스키' 친구와 함께 들어간 강의실. 그리고 첫 대면.

엄청이나 늦게 나타난 선생님.

수업중에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받고 큰 소리로 떠들던 선생님.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았다.

꽤 많은 학우들이 그 수업을 들었다.

방학 때 수상스키 타러 갈 때를 말하면서...

"비비니 입고와, 잘 벗겨지게..."

검은 반바지 반팔티 정도를 입고 오란 소리 였던거 같다.

비키니를 입지 말라는 표현이 그것이었다.

또 앞에 앉아서 선생님물음에 대답을 잘 하면 학우들이 좀 머드니까..



"이 쌍년들이~" 라고 말했다.

그 때 분위기는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던지 선생님과 웃으며 들어준 학우들..

단지 즐거운 분위기를... 편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던 선생님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기분이 나빠 그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와 내 친구는 그냥 도중에 나와 버렸다.

이 얘기를 선배 언니에게 했더니.

그 선생님은 워낙 남성성을 과시하며 욕같은걸 잘했다고 한다.

선배가 작년에 담배를 필때,

"야 쌍년아, 담배꺼" 라고 말했었다고...

그리고 뽕풀이 때는

"우리의 섹스를 위하여" 라고 말하며 건배를 하자 했다고 한다.

분명, 교실안의 학우들중 많은 학우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처스러웠으리라 생각한다.

나와 내 친구만 해도 그러니까.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를 빙자하여 서슴없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수처심을 주는... 행동을 한 그..

그를 비롯해 남성의 강압적이고 아무렇지 않은듯 불쾌감과 수처심을 주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들의 사고를 뿌리뽑아 버리고 싶다.. 아. 정말이지 또 불쾌해 진다.

● 그들의 그 껌메기 여성주의에 대한 단상... ●

어디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딱히 어떠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

힘있는 P.J. Harvey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지난 대학생활을 돌이켜본다.

난 어디쯤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난 어디쯤 존재하고 있을까...

여성의 몸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태생적 저항감만으로도

여성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여실히 느끼면서 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Episode 1

여러사람이 한 개의 테이블에 들어앉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남학우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이 공간 이미 익숙한 일이다.

각자 거마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일상적인 시간이다. 주제는 늘 그런식이었다.

남학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컴퓨터게임부터 시작하여 당구이야기, 그리고 군대이야기, 그리고 저들끼리 즐
거워 킁킁거리는 저 폐쇄된 웃음.....

그 안에서 나는 억지스레 웃음을 물려주거나, 도저히 이 지루한 그들의 대답속에서 피폐된 정신상태로 인한 신경질 반응,
그래 이런식이었던 것 같다.

아주 일상적으로 문제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일상적인 습관을 끈을 놓지 않았다.

세상의 그리고 자신의 모순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민중의 곁으로 다가선다고 선언한 그들이 말이다.

Episode 2

난 학교 안에서 제법 남자선배들과 어울렸어 지내는 그런(?) 여학우였다.

언제였을까,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실에 모여 그 날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날, 난 생리중이었고 나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
둔 상태였다.

타인의 배려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 생리주기 시 나타나는 신경의 예민함 때문에
혹시나 생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전준비작업 같은 것이었다. 그런 식이다.

생리주기가 되면 나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배려보다 타인(남학우
일 경우가 크다, 여학우는 자연스레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이다)의
신선이 신경써주는게 순리처럼 작용했었다.

어쨌든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고 있던 중 쉬는 시간에 옆에 앉았던 남자선배가 엉덩이 쪽에
'너가 겁먹을 가했고 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선배에게 버럭 화를 냈다.

그 화가 십사리 진정되지 않았고 분명 그 순간에 대한 그 선배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선배를 밖으로 불러 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여전하도 선배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길로 '그래, 미안해. 너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난 그저 장난으로 그런건데 네
가 그런식으로 화를 내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 뒤 상대방의 동의없는 신체접촉은 성폭력이다란 이야기를 아주 조곤조곤 선배에게 했
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자 선배가 하는 말 '어떻게 신체접촉을 하는데 있어 하나하나 물



어보면서 할 수가 있냐, 물론 네 말에 동의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여학우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등,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해를 시켜보라는 식의 발언 등의
설보를 했다.

참 어이가 없어서...원....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다. 남학우들에게 여학우인 내가,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감과 불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
도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 네 말은 맞지만,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 나를 이해시켜봐...' 이런 식
의 반응들.. 그래 맞다. 늘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다. 어이없어 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감정적인거고 신경질적인
것으로 재단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미 언어조차 남성중심의 이해올리기 안에서 남성언어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 안에서 여성은 자신의 감정상태나 심리
적상태에 대해 표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성주의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공언하는 남성들이여 당신들은 얼마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있는가!

여성의 심리상태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와 예의를 갖춰달라! 이런 여성들이 당신들에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진
정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성주의에 대한, 자신의 고민의 생사가 걸린 기본적인 필요조건인 것이다.

● '내가 생활하는 공간, 고대' ●

- 고려대학교 신방과 여학생 소모임 '옴들' 경선

누군가에게 쉽게 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넘지 못하는
고비가 될 수도 있다. 대학 안에서의 여남의 사고방식, 문화의 차이가 그것인 것 같다.

제작년 내가 새내기일 때, 우리 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으로 3개의 대자보가 붙었다. 한
가지는 이한별씨 사건이라고 누구나 들으면 알법한 사건.. 나머지 두가지는 그 해에 일어
난 사건들이었다. 나머지 두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한가지는 한 여학우가 참
늦게 학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만취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다.

나도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해 앞
한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행운아라서 그랬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무
척이나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밤에 화장실을 갈 때에는 언제나 잔뜩 긴장을 하고 경계
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학내의 분위기는 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언제나처럼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 일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등, 여학우가 밤에 집에 안가고 학교에 왜 남아있냐는 등, 만취한 사

람이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등,,의 반응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릴 뿐이었다.

여학우들조차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속한 공간이 그렇게 야만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그런 일(?)에 개입하다보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학우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고대라는 공간은 내가 보기에 여전히 여학우들에게 있어 서 어떤 때는 끊임없이 공포와 긴장감을 안은 채 생활해야 하는 곳임에 분명하다.

그런 특수(?)하게 보이는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는 여학우들이 생활하면서 겪어야 하는 작든 크든 수많은 불편함과 차별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어쩌다 말할 수 있을까.. 포청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학우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놀이문 화라든지, 강의 입을 해나가는 간부의 경우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들... A4한장만으론 불가능하 다!!) 대자보로 붙은 사건은 그나마 잘 처리가 된 것일지 모르지만 대자보로 붙지 않고 가려지고 은폐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짐작해볼 수 있다. 또 대학에서의 모습이 이젠 사회에 서의 여성의 모습은 얼마나 또 억압적일 것인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기에 사회의 여남차별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 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간은, 내가 속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곳으로, 좀더 여남이 조화롭게 지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올해부터 우리 과반내에 여성학 소모임 '옴름'을 만 들고 선행과 동기와 후배들과 여성주의적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학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남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해 문제제기 하려고 한다.

이제는 옴름들하고 좌절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고비들을 넘으며 자기보다 왜 나에게 그 고비들을 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과연 내가 넘어야만 하는 고비인가를 고 찰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p.s. '옴름'찾핑!! ~;

● 성역할을 차별한다 ●

#1 오빠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다. 부모님은 아직 일터에 나가 서 돌아오시지 않았다. 여동생 TV를 보고 있다.



오빠 : 아.. 오늘 왜 이리 피곤하노. 배도 고프고 힘들다. 수미야, 이 오빠야..
배고프다. 라면하나 끓여도.. 알겠지??

동생 : TV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오빠 니가 끓여 먹어라..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니도 나이 먹을만큼 먹었다이가.. 알았제??

오빠 : 야.. 이 오빠버니가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잖아.. 너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잖아..

여동생이 오빠야.. 라면 하나 못 끓여주나??

동생 : 나도 학원 갔다와서 잠깐 쉬는 거란 말이야.. 배고픈 사람이 직접 끓여 먹어라..

오빠 : 세상 많이 좋았겠다.. 예전엔 남자는 부엌 근처에도 못 가게 했는데..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동생 :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디 있노??

엄마가 일을 마치고 들어 온다.

오빠, 동생 : 다녀오셨어요??

엄마 : 그래, 니들은 뭐하고 있었노??

오빠 : 엄마.. 수미에게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엄마 : 수미야, 오빠야 배고프잖아.. 니가 라면하나 끓여줘라..

동생 : 엄마는 꼭 나한테만 그런거 하라노??

엄마 : 오빠야는 남자잖아.. 남자가 부엌 근처에 들락거리면 집안에 북 나간다.. 이런거는 여자가 해야 된다.

동생 투덜대며 부엌으로 간다. 라면을 끓여서 오빠에게 준다.

#2 오빠 다 먹고 나서..

오빠 : 다 먹었다.. 수미야, 상치워라..

엄마 : 수미는 상치우고 설거지 해라..

동생 : (화내며) 맨날 나한테만 시키노?? 나도 똑같은 자식아이가??

오빠야 니가 치워라..

엄마 : 자고로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남자한테 그런거 맡기면 못쓴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그리고 니 오빠야는 공부해서 힘든데 동생이 되 가 그런 것 하나 못해주나. 쫓-쫓-글고 니도 사랑받는 아내 될려면 남편한테 잘 해야지.. 지금부터 시집 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치워라 맏!





동생! (혼자 말로)엄마도 여자면서..

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대본으로 쓴 글이다. 오빠가 있는 여동생 혹은 남동생이 있는 누나가 한번쯤은 다 겪었을 법한 일이다. 이 대본을 보고 분노하고 있을 여학우들과 부끄러워하고 있을 남학우들이 눈에 선하다. 예상밖으로 '이런 것이 왜?', '뭐가 어쨌다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냉소적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반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불균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왜냐하면 여동생과 오빠, 누나와 남동생, 어머니와 아버지, 즉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각 각의 동등한 인격체로 맺어져 있지 않고, 나이에 상관 없이 성별에 따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주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 속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것은 불균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성역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이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삶 곳곳에 여성을,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때이다.

● 울지말고 말해요 ●

날씨가 참으로 알궂단 생각을 내내 했었다. 비라도 좀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철도파업은 그렇게 결렬이 되었다.

여 이상 동료의 피가 철도 위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없노라고, 여 이상 민중의 발인 철도가 이윤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없노라고, 열차를 세우고 파업배낭을 꾸려서 결의를 모으고 결의를 모아 파업이 진행될 고대 노천극장으로 모여들었던 철도노동자들. 그/녀들의 뜻을 힘차게 모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철도파업은 결렬이 되었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밤새 비를 맞고 노천에 앉아 있었어도, 깊은 밤 산중의 한 기에도, 절대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투쟁의 결의로 가득찬 노천이 뜨겁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러나 파업이 결렬이 되는 순간 한꺼번에 물려드는 추위란 참이 힘든 것이었다.

계다가 나를 더욱더 참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철도파업을 철회하느나 마스나를 두고 진행되었던 자유발언대 순서에서의 폭력이었다. '여성'이라는 그녀의 존재조건을 투쟁의 한계로, 삶의 한계로 만들고 마는 상황이 안겨주던 분노는 나를 더욱더 처멀리게 만들었다.



파업예정 시각인 4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이 도착할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지는 않을 내린 지도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여성노동자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엄마랑 멀어지지 않으려는 두 아이를 멀구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일이 그러하게 씬에 따라 북받쳐오르는 눈물에 그녀는 목이 메어, 몇마디 발언하고 눈물을 삼키고, 또 몇마디 진행하고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좌중 한 곳에서 튀어나온 말. "울지말고 말해요!"

비록 그렇게 외친 남성 노동자가 그 여성 노동자를 격려하고 싶었다손치더라도, 하지만 그 말은 그녀를 무대에서 내려가게 만들게 한 것이었다. 진정이 되면 다시 올라오겠노라고, 그녀는 마이크를 놓고 황망히 퇴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무대에서 눈물을 쏟는다면 바로 그것이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을텐데, 왜 그녀는 자신감을 잃고 내려가야만 했을까.

좌중에서 튀어나온 그 말을, '그'들의 비아냥과 무시(라고, 그렇게 나에게 느껴졌는데)를 용서할 수 없다.

그녀 이후, 스무명에 달하는 발언자 중 여성은 단 두명. 고작 두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녀들이 발언함과 동시에 주위는 확연히 산만해짐 그 자체였다. 그리고 아까의 그녀는 끝끝내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투쟁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자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혀지고 여성들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여성이기에 말하기 방식이 다르고 투쟁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함께 해방을 맞고자 싸우는 동지간에도 인식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할 때는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고된 투쟁의 길에 서로 의지할 동지간에 여남의 차이가 굳은 장벽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인 것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나의 존재조건이 삶의 한계는 물론이고, 투쟁의 한계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날 투쟁의 길로의 걸음에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데에 충분한 것이다.

함께 해방을 맞고 싶다는, 나의 해방이 곧 당신의 해방이 되는 그러한 투쟁을 힘차게 일구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만들던 추운 밤이었다. 날씨가 알궂단 생각을 내내 했었어랬다. 비라도 좀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기고글 Chapter1

성매매, 넓은 맥락에서 읽기

- 서울대 학생투쟁위원회 반성매매 포럼

왜 지금 '성매매'인가?

자본의 위기와전략으로서의 빈곤의 세계화, 빈곤의 여성화 경향 속에서 여성들은 점점 더 주변적인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성매매화 사회'는 여성의 성을 '손쉽게 팔수있는것'이자 여성에게 유일한 '생존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 관리의 극단적 형태로서의 '성매매', 내몰린 골목 끝에서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받는 선택지로서 '성매매'를 발견한다. 실제로 전세계적 관점에서 보아도 빈곤층 여성들은 그녀들의 '성'을 팔기 위해 덜 빈곤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여성들의 노동이 처한 총체적 현실의 단면이자 바로 열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써 430 May Day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성매매 공간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유입되고 성산업은 팽창하고 그녀들의 영혼은 잠식당한다.

우리가 지금 왜 '성매매'를 이야기하는지를 '남성의 얼굴을 한 세계화' '노동의 여성화' '세계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성매매'라는 이름의 목지로 짚어보고자 한다.

Part I. 남성의 얼굴을 한 세계화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 돌파전략으로 90년대 이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세계화는 전반적으로 전세계 빈부격차를 확대하고(정

확히 말하자면 소수자본의 생존을 위해 대다수 세계 민중들에게 "빈곤을 세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빈곤의 세계화'는 '민중'이라는 물젠더적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젠더편향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전세계 빈곤층 13억 명중 50%가 아닌 70%가 여성이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표현은 이러한 양상을 정확히 지적해주는 말이다.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는 최근 자본의 위기 돌파전략으로서의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이 기존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일어난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게 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훈련-승진 기회의 결여/ 유해한 작업환경/ 복지 급여의 부재 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을 빈곤화하며 동시에 자본으로 하여금 여성 노동력을 '순종적이고 값싼 노동력' 마음대로 쓰고 자를수 있는 노동력으로 규정, 사용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요즘 제3세계 국가들은 외자 유치를 명목으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규모 공단을 수출자유지대(EZP)라는 명목으로 초국적 기업에게 제공해주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출자유지대(EZP)는 전세계적으로 850여개 정도가 존재한다. 사실상 "초국적 지대"인 이곳 노동자의 90%가 여성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끊임없는 산재, 성폭력과 강제 임신 테스트 등 결코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는 물론 폭행과 위협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올해 초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어 이러한 '초국적지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상 : 여성노동의 "2차적 노동력"화

한국의 노동시장 불안정화도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훌쩍넘어버린 노동유연화의 대명사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미 1980년대 말~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다. 소위 "여성직종"은 90년대 초반부터 파견노동 형태를 필두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들 안에서의 비정규직은 7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식통계들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를 제외시키고 있어서 자본가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클럽 캐디와 같은 직종들은 제외된다. 고로 이러한 형태까지 포함한다면 비정규직에서의 여성 분포는 더욱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노동유연화를 체감 시키는 97년 외환위기 시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여성들은 0순위로 정리되고 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나 직종의 폐지 등의 방법으로 특히나 여성들이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자주 일어났다.

- 6 빈곤한 가게에서 여성이 많이 태어난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빈곤 집단 내에서 여성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남녀간 소득차이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두 가게에 비슷한 자원 기반과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성이 많은 가게가 빈곤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중략) 실제로 많은 경우 빈민으로 규정되지 않은 여성들이 빈민으로 규정된 여성들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일한다. ("여성화 세계화"(자야 메타) 중에서 발췌)
- 7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의 위계화가 다른 어떤 사회에 비해 철저히 이루어져 있다. 봉건적 신분제는 없어졌다고 하나 직종·직위·직급에 따라 노동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취급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의 경우 대체로 하위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의 기준도 남성중



뿐만 아니라 '가족임금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하나의 경제단위를 여성·남성 부부를 중심으로 한 단위로 보고 부양자가 남성이 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을 우선배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한부모가정, 비혼 가족 등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엄마·아빠·아이의 4인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한 가족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가족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음은 널리 알려져있다. 현대 자동차 정리하고 사건, 농협 사내부부 정리하고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 결과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 10년의 투쟁을 통해 이뤄왔던 많은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리하고는 "정말 쓸데없는 인력이 많아서 감행한 경영상 특단"이 아니라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해 취한 "위협조치"였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리하고가 생산감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부분 재고용해서 빈자리를 메꾸어야 했고, 그 재고용은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0순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자본이 단순히 여성노동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유연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구미가 결합, 여성을 2차적 노동력,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력으로 내몰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Part II. 노동의 여성화

2.1. 성예화된 사회 -성매매와 노동의 불분명한 경계에서

남성에 비해 애초부터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외모는 그 불리한 사회조건을 만회하거나 능가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모를 다른 직업능력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교환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

심적 노동평가에 기반한다. 힘이 많이 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남성다운 이미지가 그 노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한국사회의 70년대 남성들이 중심이 된 철강·제철 산업은 그 명명도 "중(重)공업"이라 불리고, 사실상 한국사회의 오늘날의 부의 기반이 된 신발·의류·텔레비전 제조업 등은 "경(輕)공업"이라 칭하는 것도 그 의미가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농협이다. 1999년 초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762쌍의 사내부부에게 그 중 1인이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깊숙한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노동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도 못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당시 해고된 688명의 여성노동자 중 66%는 퇴직 즉시 곧바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이들은 현재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때 받던 임금만을 비교할때도 1/4 정도를 받고 있으며, 각종 사내복지와 수당, 유급·무급 휴가 등을 포함시킬 때 정규직에 비해 거의 1/6 수준만을 받고 있다. 이들을 임금삭감보다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 자신의 후배였거나 동료였던 정규직 남성노동자 밑에서 2등 인간의 취급을 당하며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것은 성매매라는 단일한 형태의 일로 국한되던 여성 섹슈얼리티의 교환이 이제 여성 노동의 전반적인 고용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행위와 여성의 몸에 대한 용서와 성적 암시가 임금의 대가의 한부분이 되는 여성 노동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 여성의 노동을 살펴보면 남성들과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늘 여성으로서의 매력, 보살핌 노동, 술자리 꽃으로서의 참석 등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에서 기대되는 노동의 성격은 성적인 서비스, 성적 암시, 용서 등을 전제로 한다. 배리(Kathleen Barry)는 이런 현상들을 '섹슈얼리티의 매매화(prostitution of sexuality)' 혹은 '성적 노동의 정상화(normalization of sexual work)'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는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제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자연스러운 일은 사회, 정치 체제에 의해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적 노동'은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여남간의 권력의 배열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기존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legitimation)'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노동'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매매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로 간주되기보다는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그래서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을 요구받는 경우, 이 또한 '성적 노동'이라고 규정한다. 성예화된 사회가 원하는 여성노동의 성격은 '여성직종'이라는 부문의 확대와 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성적 노동'인 것이다.

2.2.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Sexuality

여성직종의 성적노동화

90년대 '여성직종'이 논의되는 맥락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원이 되는 노동'의 성격을 강하다. 이는 노동시장에 주로 진출하는 예비 노동군인 20대 미혼 여성의 노동이 외모와 신체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직종은 판매, 관측, 홍보, 안내 등 대인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이는 '봉사', '접대' 등의 성격이 강한 노동, 특히 타인에 대한 노동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과 여성의 외모와 아름다움을 통한 대인 중심적 업무가 바로 여성 직종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적절히 어우러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부각시키는 우리사회의 문화까지 결합하여 새로운 여성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되고 있다.

나레이터 모델이나 행사도우미로 대표되는 여성직종의 여성들에게는 서비스업 자체의 업무능력(같은 직종의 남성들에게 기대되는 능력)이외의 것들이 요구된다. 행사 도우미들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고객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접대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라고 이해한다. 이는 서비스업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업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늘씬한 몸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웃는 얼굴로 춤추고 있는 그들의 실제 노동과정은 행사도우미라는 직종이 기본적으로 남성에 대한 접대를 전제로 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서비스 노동이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지배적인 이성애적 구성을



에 기반한 대인 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서비스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은 성매매와 노동의 모호한 경계 속에 놓여 있다.

성적노동에 대한 일상적 인식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자원이 되는 이른바 '여성 직종'(대표적으로 판매직 여성, 행사도우미 등)에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적 존재로 간주되고, 그에 수반되는 '성적 노동'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된다. 하지만 '여성 직종'이 아닌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사무직 노동자, 선생님, 의사, 변호사, 혹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방송, 언론 등의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에도 여성을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며 그녀들에게 '성적 노동'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녀는 여성이다. 그녀는 사무실의 작업장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곳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매끄럽게 하는 보살핌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접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불만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바로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져야 한다.

23. 배제와 폭력의 기제로서의 섹슈얼리티

-남성적 시각에서의 여성 섹슈얼리티의 재단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몸적 존재로 파악되고, (배리의 개념에 의한) 성매매화된 사회에서의 여성은 계급, 계층, 인종, 종교 등을 막론하고 성적 대상화의 일부가 된다. 성매매화는 대중매체나 포르노그래피 속의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사회 곳곳으로 이동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성과 동일시하려는 일상적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배리1997)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가령, 키가 평균신장보다 훨씬 큰 늘씬한 키에, 비정상에 가까운 바짝 마른 몸매에, 바짝 마른 몸과는 정말 매치가 안 되는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조그만 얼굴에 분명한 이목구비, 색사하되 천박하지 않는 아름다움, 게다가 색시함과 상반되는 청순함 등이 그것이다. 성매매화가 노동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이는 여성 채용 시 외모와 신체조건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 노동 전반에서 여성 섹슈얼리티가 노동 자원으로 교환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은 여성들에게는 그나마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다 이터트를 하고, 면접 시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성형수술까지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좁아져만 가는 여대생 취업문 앞에서 많은 여대생들이 전공공부, 영어공부 등과 함께 성형수술, 다이어트를 강도 높게 병행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의 섹슈얼리티 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이 남성적 시선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구도가 형성된다. 이 구도는 후자에게는 직접적인 배제와 폭력의 경험과 함께 성매매화된 사회에서의 '타고난 외모'로 인해 패배자가 되었다는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갖게 하고, 역설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 섹슈얼리티의 기준에 더 부합하기 위해서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전자의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남아

권력을 가진듯 보이지만 그 권력은 그 여성이 체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남성들에 의해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빼앗길수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남성적 기준에 맞추어 가꾸어야만 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결국엔 여성 집단 전체가 남성적 시각에서 구성된 섹슈얼리티에 자신을 재단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 필요 없는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성적 섹슈얼리티 기준에 여성집단 전체가 남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Part III. 세계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 최진승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세계화반대 제3세계여성팀)씨가 사회진보연대 2002.3월호에 쓴 글을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는 전세계의 여성들

세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IMF구조조정, 세계은행의 외채, WTO가 강제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규제완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들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더 값싸고 순응적인 노동을 찾아 초국적 자본은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여성들을 착취하던가 아니면 반곤을 피해 선진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착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성매매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 성산업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성매매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가 수적으로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로 인한 국제노동분업에 따라 훨씬 많은 여성들이 더욱 값싸게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화는 인신매매, 폭력과 노예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길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 국제 성매매의 사각지대

'성매매'이라고 하면 곧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생각날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성매매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국제 인신매매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이다. 이 중 약 60%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팔려나가고 나머지 40%가 세계의 기타 지역으로 나간다. 미국으로 팔려나간 4만~5만의 여성과 아동 중 60%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1990년과 1997년 사이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파키스탄 또는 중동으로 인신매매 당했으며, 인도의 매음굴에서는 약 16만명의 네팔 여성과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매달 200여명의 네팔 여성들이 인도의 도시들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에 들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여성들은 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50%가 미얀마 장글 출신의



여성행동위원회

가난한 여성들이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보다 더욱 발전한 다른 아시아국가 또는 서구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 역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동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¹⁰⁾ 한국도 역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엔터테이너'로 와서 기획사와 포주들에게 속아, 결국에는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깃발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에 끌려와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성매매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국제 기획사들과 포주들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엔터테이너'나 '가정부'와 같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또는 더 경제사정이 나은 국가의 신부로 추천해주겠다고 그럴싸하게 유혹한다. 결국 이들은 여성들을 배에 실어 팔아넘기고, 팔려간 여성들은 결국 대상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10살 안팎의 소녀들도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면서 '고객'을 받도록 강요받는다. 국제 결혼중매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다할 수 없는 순종적인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주문 판매'하여 짭짤한 수익을 챙기며, 가부장들은 여성들을 강요된 '순종성'의 굴레 속에 결혼이라는 합법적 제도로 묶어버린다. 포주들은 끌려온 여성들을 1만5천에서 2만 달러 정도에 사들이고 최근에는 포주들끼리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단기간 여성들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포주들이 여성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사실상 여성들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준 포주에게 자동적으로 수백 달러의 부채가 생기고 이를 빌미로 포주들은 여성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온갖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성매매가 아닌 사실상 상착취를 당하고 있다.

가장 '남은' 직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자국 내에서도 국제적으로 팔려나가는 여성들의 '죄'는 '가난한 여성'이라는 것 밖에 없다. 이 가난함은 냉전 시대 군사주의에 의해 고착화 또는 이용되었으며, 지금 국제적 성매매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비늘과 실과 같은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가 발달하게 된 데에는 미군 체류가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주의의 발현은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빈곤과 경제중속을 고착화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여성들이 치루어야만 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입된 젊은 미군들의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들의 빈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R&R (Rest and Recreation) 협정을 맺었다. 즉, 미군들을 위한 '휴식과 오락'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들의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존재인 가난한 여성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휴식과 오락'이 무엇이었던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하다. 이것은 바로 한국 기지촌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지금도 아시아지역에 미국 군사주의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주들이 집단적 성매매의 짭짤한 수익성을 맛보았기 때문에, 포주들은 미군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여성들을 뇌주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추

여성행동위원회

천하에 아시아 정부들 역시 여성의 육체가 외화벌이에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광산업과 맞물린 성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한국의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착취가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위로'할 정도였다. 어느 새 아시아의 성매매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체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매매 사업가들은 또 다른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군사주의에 기반한 미군들의 '억제된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 또는 일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국제조직폭력배의 이윤추적에 종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서나 괴역압 제층의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그런데 임금노동의 비정규직화, 생계의 기반인 생태계의 파괴, 공공부문의 폐지 또는 축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조정의 효과는 여성들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버렸다.

여성의 육체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훌륭한' 수출품이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성매매는 다른 여타의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과 더불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를 자랑한다. 성산업의 사업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국제 마약과 무기산업을 이끄는 이들의 수입을 맞먹는다.¹¹⁾ 전쟁의 긴장이 팽배했던 시절, 군기 확립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시아 여성들을 이용하였다면, 이제는 세계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 허덕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종사자들의 '군기 확립'과 저임금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자본과 현지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력 수출이 가장 높은 필리핀의 정부는 일찍이 노동력 수출, 특히 여성의 수출이 외화벌이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깨닫고 이를 공공연하게 격려하고 있다. 서구에서처럼 여성운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순종적이고 값싼 아시아 여성들은 부유한 남성들의 인기종목이 되었다. 여행사들은 기발하고 유혹적인 광고를 통해 아시아 여성과의 '신비로운 여행'을 주선하고, 이 광고에 현혹된 부유한 남성들은 '동양적 신비'를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에 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품종'도 다양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조합의 여성이든 싼 값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

9 「Trafficking in Migrants」, 국제이주기구(IOM) 제간 소식지 20호 (1999년 12월)

10 「Combating Trafficking in South-East Asia - A Review of Policy and Programme Responses」, 국제이주기구(IOM) 연구보고서 2000년 2월호

11 Jyoti Sanghera, 「In the Belly of the Beast : Sex Trade, Prostitution and Globalisation」, 1997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and 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Prostitution (매매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자료집



기고글 Chapter2

성매매 바로 알기

- 서울대 학생투쟁위원회 반성매매 포럼

1. 우리가 성매매¹²⁾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학생인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은 이상 평온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매매와 내 삶의 어떠한 연계 속에서 성매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매매춘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남성에게 의해 그리고 그 다음의 남성에게 의해 그리고 그 다음의 남성에게 의해 페니스 때로는 손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 관통된 입이고 질이다 그것이 매매춘의 실재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될 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느끼기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매

12)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윤락(淪落), 매춘(賣春) 등이 있는데, 윤락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뜻을, 매춘은 성을 판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성을 사는 사람은 은폐되고, 성을 파는 사람만이 표현되는 용어는, 그 자체로 성매매를 피해 여성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그녀들에게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 자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는 정치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명확하게 그 관계를 드러내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춘의 실재이기 때문이다

- 안드레아 드워킨 '매매춘과 남성 지배' 중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곧 여성의 대상화, 상품화를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성매매는 결코 우리 사회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느 일탈적인 상황 혹은 일탈적인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일부이며,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성폭력 문제도 결코 성매매와 따로 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둘 다 여성의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남성이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사회의 남성 중심적 구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창녀'와 '순결한 처녀'라는 가부장제 가치관이 이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고, 여성들은 '더러운/깨끗한'이라는 기준 아래 끊임없이 남성들로부터 자신의 성을 통제 받고 검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강간 등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남성 중심적 구조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것이다. 실제로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훨씬 더 낮게 나타나는 현실이 그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국면이 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상기해볼 수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 안에서 폭력과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전쟁 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에서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규모 여성 강간은 마을과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일어났고, 일부 여성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전쟁 중 대규모 강간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은 성 산업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는 세계적인 성매매 산업의 고리망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전쟁 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는 단지 죽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성들에게 당할 신체적 폭력, 강간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성매매라는 것을 '성매매 산업' 그 자체만으로 사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나의 단일한 사안으로써가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폭력의 응결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성폭력, 전시 강간 등을 이야기하였지만 이 밖에도 포르노그래피라는 문제 - 성매매 여성들은 언제나 폭력과 강간의 위험 속에 살고 있고 강제적으로 포르노그래피를 찍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또한 복잡한 그물망으로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갖는다. 남성

여성행동위원회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 속에서 '성매매'라는 늪을 형성하고 성매매는 남성 중심적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 있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성매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성매매 당사자가 아니다. 책으로 보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부의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본 것 외에는 다른 경험이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에 조심스럽고도 겸허하게 성매매 담론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매매에 대해 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매매를 분명히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발언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인 것이다.

2. 남한 사회에서의 성매매 역사

남한의 성매매 관련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남한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의 군대매춘과 기생관광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체계적 성산업이 자리잡았다. 1.2 공화국이 한국전쟁 당시 존재했던 공창을 폐지하고, 이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조치와 함께 약간의 수용 설치 등의 선도책을 병행했으나, 사창, 고급 요정은 더욱 번창하였다. 그러던 것이 미군 주둔 필요에 따라 미군 성매매의 경우는 오히려 장려되었던 것이다. 3.4 공화국에는 1961년에 지금까지 성매매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산업진흥법'에서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에 한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한다. 그리고 미국 성매매 문제 등 특정지역(단속을 면제해주는 지역)의 설치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흔히 기지촌이라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다. 법적으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미군에 한하여서 기지촌 내에서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분명히도 남성의 얼굴을 한 양 국가간의 자국의 실리를 위한 거래였고, 그 대가는 온전히 기지촌 여성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기지촌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는 심각하였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미군들에 의한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고, 미군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달 성병 검사를 해 그 결과를 가슴에 달고 변호사로 자신의 이름을 대신해야 했다. 가게 밖에는 누구얼마 하는 식으로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다. 이처럼 그녀들은 이 속에서 결코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였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92년에 있었던 윤금씨 살해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이러한 고통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역군이라는 호칭 속에서 은폐되었다.

국가적 과업으로 경제성장이 강조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광산업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말이 관광산업이지, 이를 빌미로 외화를 획득한 것은 이른바 '기생관광'이라 불리는 성매매 산업이었다. 미군이 줄어들면서 기지촌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계시의 관광특구 지정요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두천과 송탄,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이 곳에서의 성매매는 활성화되었다. 이리하여 1980년대 말부터 남한에서의 성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팽창은 1970년대 이후 발전

여성행동위원회

전략에서 외국인에게 국한되던 성적착취 양식이 비공식 부문의 서비스 산업(즉 관광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일반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90년 남한사회가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적은 자본으로도 가시적인 자본축적이 가능하며, 자금 회전이 빠른 3차 서비스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3차 서비스 산업은 여성다움을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 업소들의 증가는 여성노동력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가정에서 무임으로 착취당하는 여성의 노동은 공적 부문에서도 평가 절하되고 주변화된다. 여기에서 여성은 성의 상업주의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는 자발적이라는 외피를 쓴 구조적 강제이다.) 1997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가게파탄을 초래하였으며, 가게파탄에 따르는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지워졌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즉 여성에 대한 제한성, 배타성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여성노동은 특정 산업 즉 3차 서비스 산업과 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에 집중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성매매는 팽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차 산업으로 물리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노동 자원으로 이용하기를 강요받는다. 이제는 사무직에 있는 여성들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하고 짧은 치마를 유니폼으로 입어야 하며, 커피를 타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복사를 하는 등의 여성적인 일이라 일컬어지는, 그러나 결코 여성성과는 관련이 없는 일들까지 도맡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노동 시장의 영역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노동자원으로 팔아야만 하는 성매매화된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팔아야만 하는 섹슈얼리티의 매매는 성매매의 전사회적인 확장이며 성매매와 같은 맥락 위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성

몸을 통해 자아에 가해지는 폭력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될 때 그리고 섹스화된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여성 인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포르노그래피 매체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강간은 성 착취의 전형적인 증거인 한편 성매매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中'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다. 몸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 자아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고리이며 권력이 작동하는 물질적인 공간이다. 몸을 통해 바깥 세상과 연결됨으로써, 개개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타자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인간 존재로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몸은 인간의 경험을 담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취되고 유지된 인간성 그 자체를 담아내는 기제인 것이다. 따라서 몸은 자아와 분리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



여성행동위원회

을 때에나, 화장을 고쳤을 때 등 뭔가 몸에 변화를 줬을 때 그것이 나의 기분 더 나아가 자아의 자존감에 얼마나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경험에서 몸에 대한 성적 상호작용이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었다면 여기에는 자아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 것이다.

남성에 의해 물질화된 여성이 자신을 또 다시 물질화 하는 과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스스로의 몸과 자아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적인 경험이 자신의 자아까지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몸과 자아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아와 몸을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피해 여성의 경험은 그 자체로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남성의 폭력 아래 자신의 몸을 스스로 대상화시키고 물상화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시각과 행위에 의해 지배되는 성매매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자아와 분리시켜 물상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남성의 성기로 여성의 성기에 가한 폭력'이라는 조야한 수준의 설명만으로는 성매매의 경험을 담아낼 수 없다. 성매매는 몸에 각인되는 고통을 통해 피해 여성의 자아에 가해지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착취에 다름 아니다.

여남의 권력 관계 드러내는 장

단순히 성매매는 여성의 성기에 가해지는 폭력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성매매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상대 남성들은 단순히 여성에게 가만히 있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연인이나 아내인 척 연기하기를, 어떤 때는 스스로 모델감이 드는 행위를 하기를, 어떤 때는 하녀가 되기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남성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 스스로 여성보다 우월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매매는 단순히 신체적인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여남의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폭력이나 폭언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력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함께 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성매매 과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매매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근본 원인과 과정 자체가 여남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지, 따로 떼어내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 속에서의 관계맺음 자체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므로, 그 연장선상에 폭력과 폭언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회 자체가 여성을,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물상화하고 대상화하는 성매매된 공간인데, 무엇이 여성에 대해 폭력적이고, 혹은 폭력적이지 않느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폭력이란 말인가. 혹은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의 경계는 누가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가. 오늘날의 사회는 무엇이 어떠한 것이라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기준에 의해 성폭력, 그냥 폭력으로 이분화되는 성매매 담론만을 살펴보다도, 성매매 내

여성행동위원회

에서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구조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성산업 내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

2002년 초,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군산 화재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났는데,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창살이 둘러쳐진 창문을 뚫고 나오지 못해 그대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성산업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성산업 속에서 여성들은 포주로부터 온갖 구타와 성폭력을 당한다. 포주들은 바로 이러한 폭력으로 자신과 성매매 피해 여성간의 권력 차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 의지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체념하고 수감하게 만든다. 또한 그녀들은 항상 감시 받고 감금당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루 15시간 노동에 한달 하루도 휴일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휴가를 내면 그 벌금으로 20-30만원을 물려버리는, 그래서 어쩔 수없이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착취와 인권 유린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혀서 고립되고 가족들과의 유대마저 끊어져버린 피해 여성들이 '삼촌', '이모'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포주나 중간 관리자들과 맺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은폐될 뿐이다. 이처럼 성산업의 구조는 빚으로,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피해 여성이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으로써 탈성매매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 구조에 안착하게 만든다. 성산업은 그 피해자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인 것이다.

4. 성매매에 대한 관점 잡기

성매매는 필요악?

혹자는 남성의 넘치는 성욕을 강간 등의 '일탈적인' 성폭력으로 해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에너지가 충만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인간의 성은 고정 불변적인 자연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성이 존재하고, 모두 상대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욕구'나 충동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섹스는 자아가 구체화된 차원으로서, 신체적 또는 생리학적 사실에 선행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모든 사람은 성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성욕보다 더 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본능적인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식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빵을 구하여 먹는 사회 메커니즘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즉, 식욕이라는 것이 본능이라 하더라도, 빵을 돈을 주고 사든지 훔치든지 하여 먹는 사회적 관계맺음은 그 자체로서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도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욕은 어떠한가. 성욕이라는 것이 본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욕을 해



결하기 위해 그것도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주고 여성의 몸과 자아에 폭력을 가하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인 것이다.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

성매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매춘 여성의 파타적인 취미로 인해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논리이다. 과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쾌락을 얻는 존재'인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성매매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는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이나 그로 인한 가난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자발적 유입은 진정한 자발성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 제한된 취업기회, 불안정한 고용 상태, 복지서비스의 미흡,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 등 경제적, 사회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강제된 선택인 것이다. 이는 특히 IMF이후 여성의 성매매로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가계파탄의 비용을 고스란히 여성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낮은 입지를 가지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서 헤고 1순위인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매매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거짓 광고도 큰 몫을 한다. '월수 500 보장, 숙식 제공'이라는 허구적인 광고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월수 500과 숙식 제공을 기대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찾은 여성에게, 그 속에서의 착취와 폭력들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 사회에서는 여성의 몸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그대로 실현되는 공간인 몸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 즉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매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매매로의 유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 이 땅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성도착증이 있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사려고 하는 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여성이 원한건 원하지 않건 강제적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그녀의 섹스를 사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할 권리는 남성이 어떤 환경에서도, 비용만 있으면 섹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남성만의 권리일 뿐이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선택일 뿐이다.

5.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의 허와 실

성매매가 없고 타고난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제의 고민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천들을 벌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투쟁의 흐름들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만한 힘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다. 긴 호흡의 투쟁 과정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풀이하기 위해, 현재 벌여내고 있는 실천 흐름들을 보자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물론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같은 제반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함께 만들어져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방지 특별법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으며 과정상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들을 짚어 나가보도록 하자. 우선은 현재 남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자. 1961년 쿠테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사회악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언뜻 보기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듯 하나, 법은 곧 시문화 되었고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성매매는 확대되었고, 기차촌 등의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났다. 사실 법 이름부터 문제가 있다. 성매매 용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앞두고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락행위'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윤방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애매한 법조항으로 인해 여성들이 강제로 인신구금을 당하는 현실이다. '상습적인 윤락행위자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지도소 등에 임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은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들은 모두 강제 수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바로 이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1995년 8월에 발생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었다. 숙소에 긴급장치가 되어 있어 불이 나도 원생들이 빠져 나올 수가 없어서 모두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얹힌 비리와 파행적 운영이 폭로되었고 관계부처의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성, 이를 방지해 온 법에 문제제기 되었다. 또한 윤방법은 처벌 규정이 타 법령에 비해 약할 뿐 아니라 성매매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그리고 중간 착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규정 등이 미흡하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끔찍한 참사가 잇달아 일어났다. 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죽음을 계기로 현행법인 윤방법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성매매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성매매방지 특별법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청소년, 대통령령이



여성행동위원회

정하는 장애인 및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된 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신매매, 감금, 협박, 채무 등을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중간업주들의 형량이 운방법보다 강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를 고소, 고발, 신고한 자 및 성매매된 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동식하게도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인한 채권 무효(원래 성매매 관계에서 지게 되는 빚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다)는 이미 운방법에도 나타나 있지만, 채권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는 모두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성매매를 통해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추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운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진보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성매매된 자가 있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자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자발적으로 업소에 들어온 여성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신매매되어 온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들어대는 이중적 잣대, 즉 성 구매 남성중심의 시각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인신매매, 감금, 강간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했으면 보호해주겠다는 말이고, 자발적으로 업소를 찾아왔으면 그 여성은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여성까지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강제' vs '자발'의 구분은 피해자의 정체성 범위를 제한하고, 대규모 성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가난과 가족의 압력, 그녀가 살아남은 근친폭력, 그녀의 남자친구에 의한 구타, 그녀가 이용 가능한 고용 조건의 결여 등 그녀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조건들이 비가시적인 문제로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도 남성 중심적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의 완전 피해자 규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삭제!

계류 중인 성매매방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다시 출발점에 선 느낌이다. 그 동안 '성매매 반대'만을 외쳐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성산업을 번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테두리 밖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는 예전과 같은 오류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현행법인 운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한 편, 그 법안에는 실질적인 성매매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지금의 성매매방지 특별법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여성을 완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결론을 대신하며.



여성행동위원회

성매매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있어온 직업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사고하고, 성매매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정신적, 물리적 측면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시키는, 여성에 대한 주변화, 입체적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드러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완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 조항 제정 운동 또한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에 갇히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며, 우리가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섹스는 노동으로 전락하고 여성은 착취당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안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타자화 된 시선으로 '그녀들' 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나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시선으로 서로를 훑고 있으며, 일상적인 나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읽힐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자유를 위해서 남성과의 사회 구조, 남성의 성인식에 따라 구성되는 성문화 전반이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노예제 시대에 노예제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던 것과 같다. 그

리고 노예제는 없어졌다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중



보론

노무현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 사회진보연대

21세기는 여성의 세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으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IT 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과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함께 높은 감수성과 창의력을 갖춘 여성 인력이 경쟁의 무기가 되며, 전체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높아지는데 발맞추어 '여성 인력'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21C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선진화 방안(여성개발원/삼성경제연구소, 2001.12.11)).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율의 하락과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합계 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2.1명)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변동 전망(김승권, 2002)).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라기보다는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회화적 과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양육·출산보

살핌 노동의 제공자로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양성평등 실현 정책의 개요

: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실현', '참여복지를 통한 보육문제 해결'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여성업무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율해주는 조정기구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내에 여성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시행할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방침은 크게 '차별 시정'과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육 지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제시한 여성정책과 공약 민주당 여성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는 지난 여성부의 성과와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 여성의 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
11. 여성과학자 정책
12. 여군인력 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 여성부역할 제고

여성부의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노동부의 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2대 국정 과제를 종합하면 노무현 정부가 시행할 여성정책의 가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은 직장·가정의 양립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모성보호 현실화·사회분담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보육관련 정책은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하며, ①장애아와 만 5세아 9만 1000명에 대한 무상보육을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고, 0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 11만 9000명에 대해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②2008년까지 영유아 보육 수요를 완전 충족하고, ③영아·휴일·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크게 확충하며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가 발표한 「보육사업활성



여성행동위원회

화방안)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의 내용은 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노동시간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야간', '휴일', '24시간' 등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등 서비스 다양화 ② 부모들이 직접 출자하여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이것을 다시 (부모들이 납부하는) 월 보육료로 운영하는 '공동육아제도' 등을 활성화 유도 ③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 규제 철폐 ④ 아이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현행 월 20만원)을 현실화하고, 지방노동관서가 중심이 돼 관내 인력파견업체와 기업을 연계시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풀이 활용되도록 하며, 육아휴직급여 수혜를 위한 요건을 완화(1년-6개월)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모성보호법을 내실화하고 사회분담을 확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취업규칙에 명문화, 근로감독 강화 ①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엄정한 법 집행, ②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 ③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와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하는 출산간호휴가제 입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차별 시정 정책과 법 적용의 확대이다. 12대 국정과제에서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이용되어 온 할당제가 시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①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부조항(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장년, 해고조항)에 적용을 확대할 것 ②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외형상으로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 절차가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객관화할 것 ③동일노동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현행 법제상의 '동일가치노동'노동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규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동일가치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직무평가에 필요한 직무범위·평가항목·평가방법과 임금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 ① 기술이라 함은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② 노력이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 ③ 책임이라 함은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④ 작업조건이라 함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할 것 ④여성의 고용촉진기반 구축 방안으로 고용안정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근로의 풀을 확보하여 구인·구직을 연계할 것 등이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밖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시행의 계획으로 호주제 폐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현행 호주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부부와 미

여성행동위원회

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성인지체(性認知的) 가족지표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가족정책기본법 제정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사회복귀 지원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산출직 할당제 도입과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처한 '이중 노동'의 딜레마

위의 정책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호주제 폐지, 보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와 같은 약간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되어야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에게 던져진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인가'하는 것을 훨씬 초과한다.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라는 노동인구의 재생산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문제는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구조'로 더욱 확대된다.

'상품생산'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내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도록 주체화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 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전체 여성 고용 중 이러한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는다. 경제의 금융화 서비스화 경향에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금융위축들의 레저, 유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른바 하인 노동이다. 보험상품판매원,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 이른바 '특수 고용직' 역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노동은 노동시장 내에서 숙련을 요하지 않는 부차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자성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한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누군가는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주로 가사를 책임지고 부수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대체로 좀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행동위원회

현재의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 구성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끝없이 악순환되고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재생산하고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부추긴다. 여성들의 종속은 이러한 성별 노동분업에 의거하여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했음을,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의 '양성평등 정책'의 본질과 한계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새로운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 단체들이 활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그 한계가 자명한 '평등'과 '보호'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가둬들여 정부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한 흐름은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노동의 양산화와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과 호응하여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로 그 급진성을 탈락시키고 점차 화석화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

